

【신간소개】

만주어 학습을 통한 만주학의 저변 확대 - 이선애 · 김경나 공저, 『초급 만주어』(2015, 박문사) -

권 용 철*

1. 만주어에 대한 관심과 만주어 교재의 필요성

최근에 들어서 광범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만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학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주에 주목하게 되었고,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만주학’이라는 독창적인 학문의 성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학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만주어’와 이를 표기하는 ‘만주 문자’라고 할 수 있다. 만주족이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와 궤를 같이 하여 출현한 만주문자는 만주족이 기록을 위해 독자적으로 사용한 문자이고, 만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주어는 현재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死語’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史語’이다. 그래서 만주어로 된 무궁무진한 사료들이 지속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만주학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만주어에 대한 관심은 학계를 넘어 대중들에게까지도 전파되어 영화 <최종병기 활>(2011)과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2013), <삼총사>(2014)에서는 배우들이 만주어 대사를 직접 구사하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도 하였다.

이렇게 만주어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교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언어학자朴恩用이 1969년과 1973년에 만주어 문법서『滿洲語文語研究』1권과 2권을 출간했던 적이 있었다.¹⁾ 그러나『滿洲語文語研究』1권은 250부만 한정 출판되었고, 2권은 300부만 한정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만주어 학습의 열기가 널리 확산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滿洲語文語研究』를 살펴 보면, 만주어 문법에 대한 설명은 풍부하지만 기본적인 글자 학습을 위한 장치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만주어를 처음 배우려는 독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해외의 만주어 문법서도 여러 종이 이미 출간되어 있지만 이것이 국내의 만주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직접 만족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웠다.²⁾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만주어 학습에 대한 대중적인 열기를 충족시키면서 만주어 사료 해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우리말 교재가 절실히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학자들의 만주어에 대한 관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역사학자들이 만주어 사료를 취급하는 방법까지 교재에 녹여낼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만주어 학습이 이루어질

1) 朴恩用, 1969, 『滿洲語文語研究(一)』, 螢雪出版社; 朴恩用, 1973, 『滿洲語文語研究(二)』, 螢雪出版社.

2) 영어로 된 만주어 문법서로는 P. G. Von Möllendorff, 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Gertraude Roth Li, 2000, *Manchu -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Liliya M. Gorelova, 2002, *Manchu Grammar*, Leiden · Boston · Köln, Brill; Eung-Jin Baek, 2011, *A colloquial Manchu grammar*, Chuncheon: Hallym University Press 등이 있고 일본에서 출간된 만주어 문법서로는 河内良弘, 1996, 『滿洲語文語文典』,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河内良弘 外 編, 2002, 『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가 있다. 중국에서도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滿文部 編, 1981, 『滿文語法』,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滿文部; 愛新覺羅瀛生 編, 1988, 『速成自學滿語基礎講義』, 北京: 民族出版社; 季永海 編, 2011, 『滿語語法(修訂版)』,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등과 같은 만주어 문법서들이 간행된 바 있으나 이러한 문법서들이 우리나라의 만주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일부 문법서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문법사항과 만주어 독해를 제시하고 있어 만주어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모든 것을 위한 만주어 학습서 『초급 만주어』가 최근에 출간되었는데, 이는 만주학의 발전과 그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초급 만주어』의 내용과 특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이하 만주학센터)에서 기획하고, 이선애·김경나가 공동으로 집필한 『초급 만주어』는 필자들이 오랫동안 만주학센터에서 맡아왔던 만주어 강의 경험을 토대로 탄생한 만주어 학습서이다. 만주학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만주어 강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만주실록』(Manju i yargiyān kooli)과 『만문노당』(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 등 만주어 사료를 읽는 세미나까지 진행해왔다.³⁾ 그 경험과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드디어 우리말로 된 만주어 학습서가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공동 저자인 이선애는 滿清史를 전공하고 있고, 김경나는 몽골 어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만주어 학습서 저술 과정에서 역사학과 언어학의 학제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더욱 가치가 높다.

『초급 만주어』의 내용은 모음, 자음, 특수문자, 전사연습, 인사, 나이, 가족, 건강, 자기소개, 만주어학습, 인물, 역사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독해연습 및 부록(삼전도비문, 문법정리)이 수록되어 있다. 1강부터 4강까지는 만주어의 기본 문자를 익히는 단계인데, 이는 처음 만주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쓰기 연습’ 부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그림처럼 보이는 만주어 단어를 직접 쓰면서 만주어에 친숙해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는 기존의 문법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 책

3) 장기간 진행된 만주어 사료 윤독 세미나의 결과로 최근에는 『만주실록』 역주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역주회, 2014,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참고.

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강부터 11강까지는 다양한 상황에 해당하는 만주어 대화를 통해 단어와 문법 사항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2강 역사에서는 『만주실록』에 나오는 태조 누르하치의 만문창제 이야기와 만주족의 시조 설화 부분을 만주어로 직접 학습하면서 만주어 사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결국 만주어 학습은 만주어 사료를 읽기 위한 노력인데, 『초급 만주어』는 만주어 문자에 친숙해지고 일상 대화 형식을 통해 문법을 익힌 후 본격적으로 사료를 해독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주어 사료의 딱딱한 문체를 접하기 이전에 최대한 만주어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만주어 사료 해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에 수록된 문법정리를 통해 『초급 만주어』 학습으로 익혔던 중요한 문법사항들을 되새기고 이후 중급 수준의 만주어 학습으로 넘어가는 준비까지 마칠 수 있다. 즉, 『초급 만주어』는 만주 문자의 모음, 자음에서 시작하여 중요한 문법사항을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만주어 사료를 해석하기까지의 모든 학습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면서도 기존에 잘 알려진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느낌으로 거부감 없이 만주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만주어 문법서가 갖추지 못한 특징이기도 하다.

3. 『초급 만주어』 출간의 의미

만주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어를 학습할 수 있는 마땅한 교재가 없다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해 만주어는 접근하기 어려운 ‘희귀 언어’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초급 만주어』의 출간과 이 책을 기반으로 한 만주어 학습을 통해 만주어는 조금씩 친숙한 언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기존의 문법서를 참조해야

만 만주어를 익힐 수 있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이제 학계의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말로 된 교재를 활용하여 만주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만주어 사료의 분량이 실로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수는 극도로 적어 만주학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다양한 연구 주제의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급 만주어』의 간행을 통해 학술적으로는 만주어 사료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면서 만주의 독특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다방면의 연구 성과들이 만들어져 만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만주어의 학습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만주어 사전⁴⁾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사전 편찬 분야와 관련 연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급 만주어』를 활용한 만주어 학습의 효과가 꾸준히 나타난다면, 만주어 사료를 해독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만주어에 대한 호기심 충족도가 높아지면서 만주학의 저변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해서 배우면 곧 어려운 것이 없는”(kiceme tacici uthai mangga ba akī) 만주어를 학습해서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는데 『초급 만주어』가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초급 만주어』의 출간을 디딤돌로 삼아 만주어 사료 운독의 성과가 앞으로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며, 초급 수준의 만주어 학습을 마친 이들을

4) 기존의 만주어 사전으로는 만주어-영어 사전인 Jerry Norman, 1978, *A Concise Manchu-English Lexicon*, Seattle &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와 최신 개정판인 Jerry Norman, 2013, *A Comprehensive Manchu-English Dictionary*, Cambridge & 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가 있고 만주어-일본어 사전으로는 羽田亨 編, 1937, 『滿和辭典』, 京都 : 京都帝國大學滿蒙調査會 : 河内良弘 編, 2014, 『滿洲語辭典』, 京都 : 松香堂書店이 있다. 만주어-중국어 사전으로는 安變成 主編, 1993, 『滿漢大辭典』, 瀋陽 : 遼寧民族出版社 : 胡增益 主編, 1994, 『新滿漢大詞典』, 烏魯木齊 : 新疆人民出版社 등이 있다. 만주어-한국어 사전으로는 金得楓 編, 『기초滿韓辭典』, 大地文化社, 1995가 있지만 다양한 만주어 어휘들을 더 수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전 편찬 성과들을 바탕으로 풍부한 단어를 망라한 우리말로 된 만주어 사전이 출간된다면 만주어 학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해 『중급 만주어』, 『고급 만주어』 등의 만주어 교재도 곧 훌륭하게 완성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만주어 사료를 활용한 다방면의 연구들을 통해 만주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초급 만주어』가 만주어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사료 해독 능력 함양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투고일 : 2015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5년 6월 10일